**Tex, Discourse, Concept: Approaches to Textual Analysis (Jan Ofversen)**

**전파연구회(2013.11.23)**

**도종윤**

1. **서론**
* **역사**
* 과거의 목소리(기념물)를 다루는 학문. 따라서, 원자료의 진위가 중요(source criticism) 반면, 텍스트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다. 일종의 증언(testimony)
* 텍스트 분석이란 과거를 재현하는 언어적 형태와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기억-증언과 증언-서술 사이 연관의 재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
* (기억-증언-서술) => 재현
* **사료(historical document)에 대한 텍스트 분석법에 대해 서술하려 함.**
* 담론분석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에 중점을 둠.
* 더불어 텍스트라는 지평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초점을 둠.
1. **Constructivism tout court(구성주의에 대한 짧은 요지)**
*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textuality)에 대한 연구**
* Louis Montrose(신역사주의): ‘역사의 텍스트성, 텍스트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 이는 “텍스트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텍스트 안에서 역사는 그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임. 이는 역사학자들에게 텍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할 여지가 생기게 함.
* textuality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성주의자들이 가진 전제(넓은 의미에서)
* 하이데거의 표현에 따르면, “인식될 수 있는 것만이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인식된다는 것은 그것이 발명되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다룬 것은 언어[[1]](#footnote-1)라기 보다는 개념(concepts)에 대한 것. 저자는 감각(sensation)과 개념화(conceptualization) 사이의 관계가 ‘발명’에 근거하고 있다고 봄. 보다 칸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Ernst Cassirer의 주장(극단적인 구성주의자로서), “그게 뭐든 간에 명칭이 부여되기만 하면, 그건 실제(real)가 아니라 실재성(reality)인 거다”[[2]](#footnote-2)
* 모든 존재는 ‘언어’로 형상화되었다는 극단적인 존재론을 받아 들이기에 앞서, 체험(experiences하이데거)과 의식(consciousness 카시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만은 잊지 말자.
* 분명한 것은 구성주의가 언어(language)와 실재(reality) 사이의 관계에 대해 뭔가 존재론적 가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저자는 존재론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님. 단지 언어가 인간의 실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 (Berger&Luckman의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
* 언어가 가진 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겠음.
* 언어(말하기, 재현)는 사회의 고유한 일부분임. 여기서 언어의 뒤에 감춰진 의식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함. 언어는 사회가 외재적 실재로 드러나게 하는 무의식적 사회적 작용 중 하나의 요소임.
* “사회는 인간의 산물이다. 사회는 객관적 실재이다. 인간은 사회적 산물이다.” (Berger&Luckman)
1. **Questions**
* **Discourse theory는 언어와 관련된 이론**(theory of language)
* 구성주의 관점에서 discourse theory는 언어와 실재에 관한 실재론과 유명론 사이의 논쟁에서 존재론적 가정을 다룰 때 주로 언급. 그러나 저자의 관점은 discourse theory는 언어적 관점에 기반하여 어떻게 텍스트에 접근할 할 것인가에 유용하다고 봄.
* 이런 의미에서 텍스트 분석을 할 때 다음 6가지 질문을 염두 해 두어야 함. (언어와 구성주의의 관계?/의미의 단위로서 텍스트란?/언어의 레벨은?/supra-textual units는 어떻게 설명?/text와 context의 관계?/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언어의 차원은? p.61)
1. **What do we mean by text? (텍스트란?)**
*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텍스트란?**
* 의미론적 관점: 텍스트란 ‘문장의 연속으로 이뤄진 어떤 의미의 단위’임.(형태소, 어휘, 어구, 문장 등과 구분).
* 기호학적 관점: 텍스트의 자율적 질서, 의미가 가진 질서에 관심.
* 내러티브 관점: 텍스트라는 플롯(plot) 안에서 뭔가 벌어지도록 만드는 서로 다른 행위항(actant)들의 역할에 대한 관계에 관심.
1. **At what linguistic level do we want to work? (이 글에서 다루는 언어적 레벨은?)**
* **Text 분석이 아닌 text의 의미 생산(meaning of production) 묘사에 관심.** 특별한 대상, 주제, 개념이 생성되고 이것이 다시 다른 곳의 텍스트에서 재생산되는 것에 관심
1. 하나의 텍스트 상위에 어떻게 레벨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ex. supra textual level
2. 개별 텍스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 **텍스트 위의 상위 레벨이란, 쟝르, 담론, 의미론 분야, 이데올로기 등을 일컬음**.
* 이는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단위들이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상위 레벨

ex.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에서 텍스트가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문제[[3]](#footnote-3)

* **Dual perspective** (p.62 왼쪽 그림)

* Text↔supratext (discourse) 및 text↔text
* 위와 같은 관계는 때때로 간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생성.
1. **How do we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text and context?(텍스트와 맥락의 관계)**
* 텍스트 레벨과 더불어 맥락도 중요
* Context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의사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순간의 상황까지만을 한정한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 맥락이나 사회적 구조까지 포함 할 것인가[[4]](#footnote-4)
*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단지 의미의 자율적 체계에 관심.
* 기표(significant), 기의(signifié) 중심.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reference)임. Referentiality에 초점을 두어야.[[5]](#footnote-5) (p.62그림 참조)
* 저자는 언어 안에는 항상 ‘언어 외의 것(extra-linguistic)’이 있다고 봄.
* 언어 안에 드러난 대상(object)은 언어가 이뤄진 순간 개별적 화자가 취하는 외연과 연관 되어 있음 ex. 어떤 문장에서 화자가 ‘너’라고 했을 때 ‘너’는 그 글을 읽는 독자 ‘너’가 아님.
* **Referentiality**
*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Referentiality는 언어 외적인 상황에서 있으나, 저자는 언어의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

cf. 언어 효과를 referentiality 관점이 아닌 speech act[[6]](#footnote-6)관점에서 보자면, 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발화효과행위임.(일상언어학파의 관점)

* **해석행위** (일종의 언어 행위 효과)
* 텍스트의 의미를 맥락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 맥락의 관점이란 텍스트가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등장한 어떤 ‘도전(challenge)’에 대응한 것. 해석은 수용자의 몫.
* 이때 ‘도전’이란 대답이 가능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의문을 불러일으켜 대답을 요구하는 그 무엇)
*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텍스트는, ‘의도’, ‘쟝르’, ‘역사적 상황’ 등 세 요소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Greenblatt의 견해)
* 텍스트, 맥락, supra-text를 도식화(p.63 그림).
* 위의 세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텍스트를 강조하면 텍스트 만능주의(이때 reference는 단순히 임의적인 의사 소통의 도구일뿐), 맥락을 강조하면 맥락주의(contextualism-텍스트는 맥락으로 축소됨)에 빠짐.
1. **Which dimensions of language are we interested in? (관심을 가져야 할 언어의 차원)**
* **개념사(Begriffsgeschite)란?**
* 전제: “사회가 없으며 공동의 개념도 없다.”
* 몇몇 개념들에 의해 정의되는 언어적 공동체보다 복잡한 정치-사회체계에 근거함. cf. 이때의 체계는 사회사(social history)와도 구분됨(Koselleck)
* Koselleck: 전통 언어학에서 보자면 그의 시도는 의미론임. 그러나 그의 다른 점은 개념들을 범주화 시켰다는 것.
* **담론분석이란(Discourse analysis)?**
* 전통 언어학에서 보자면 언어 체계와 대비되는 것으로 언어의 사용 예를 의미. 그러나, 단지 의미론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 ‘개념’과 ‘담론’은 단순히 텍스트나 언어로 들어가고자 하는 입구가 아니다.
* 보다 세분화 하자면 내러티브 구조, 논쟁적인 구조 또는 행위적 구조(언어행위)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텍스트 접근법**
* 미시적 수준: 텍스트가 드러내는 맥락을 좁게 정의하고 몇 개의 텍스트를 밀착하여 분석
* 거시적 수준: 개념 또는 담론들은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
* 서로 다른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텍스트들에서 그 텍스트적 덩이를 supra-textual 수준에서 분석
* 종합화 수준: 시간화와 변화에 충실한 관점.
1. 담론의 형식에서 쪼개기, 위치바꾸기, 불일치 등에 초점을 둠.
2. 개념사: 의미의 ‘통시적 계층’과 ‘통시적 긴장관계’에 관심.
3. **Discourse analysis (담론분석)**
* 대상(objects)은[[7]](#footnote-7)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담론 분석이 필요한거다….)
* 담론을 분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 **한계짓기(delimitation)와 특정화시키기(specification)**는 세가지 차원에서 관찰됨(푸코적 개념 설명)
1. 개념적 설계: 전문용어에 의해 정의
2. 의미론적 거시적 분야: 주제(themes) 또는 이론으로 형식화
3. 위치(셋 중 가장 중요): 위치가 결정하는 구조(organization). 즉, 주체가 놓여있는 위치. 담론에서 화자의 위치 또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 분배는 의사 소통의 특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봄. 즉, enunciation은 의사소통에서 상황을 지적하는데 어떤 특성을 드러냄.
* 담론은 제도화된 존재가 되면서 실제적(practical)이 됨. 제도는 어떤 대상을 한계 속으로 제한해 넣음. 예컨데, 의학에 관한 담론은 ‘병원’과 그 병원에 소속된 의료진이라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때 각자의 위치(의료진, 환자) 등은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과학적 담론은 어떤 이론과 개념을 다룸. (위치⊂제도⊂담론 ⇒ 개념과 이론)
1. **The Level of discourse (담론의 수준)**
* **담론 분석의 수준**
* (푸코) 담론 간 수준 또는 텍스트 수준 / 담론 내 수준 또는 discursive economy.
* 담론 분석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음. 즉, 진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면과 다른 담론 안에서 이미 정의되었을 수도 있는 진술들 사이의 충돌에 관한 면. 따라서 분석의 초점은 진술을 어떤 텍스트 안에 한정 짓는 것이 될 수 있음.
1. **Begriffsgeschichte (개념사)**
* **의미론을 보다 정교화**
* **개념사는 ‘개념들’과 ‘개념적 설계(건축)’임.**
* **코젤렉의 ‘개념(concept)’**
* ‘개념’이란 의미(meaning) 또는 의미화(signification) 과정 속의 ‘의미화 된 것(the signified)’을 일컬음.
* 그 용례를 씀으로써 의미 안에 부가되어 있는 것을 얻음
* .
* 논점이 되는 상황에서 단어 또는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을 둠
* 그러나 의사소통의 맥락이 단의의 의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
* **‘개념’과 ‘단어’ 사이의 관계만을 놓고 의미 분석 할 때의 예**
* 개념은 의미의 클러스터로 다루어짐. 의미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
* P. 67의 두개의 그림 참조
* ‘개념사’와 ‘담론분석’의 종합화에 대한 이미지를 시도할 필요 있음.
1. **Semantic, position, and strategies- an example(의미, 위치, 전략을 이용한 예)**
*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직후의 국민의회에서의 연설의 예**
* 거시적 수준: 민주주의의 제도화
* 중심요소: 인민(people), 미래, 친구, 적,
* p.68의 그림
* 이 그림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화자들이 텍스트 안에서 어떤 의미적 선택을 하였는가에 대한 것임. 반대로 화자의 서로 다른 위치가 의미론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분포시켰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함.
1. **Concluding remarks**
1. 하이데거가 말했던 ‘언어(존재의 집)’는 저자가 인용하고자 하는 소쉬르적인 의미의 파롤이나 랑그가 아니라는 뜻. 하이데거에게 ‘언어’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간임을 확신하는 근거임. 저자의 하이데거 인용은 자신의 주장이 현상학에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 [↑](#footnote-ref-1)
2. cf. 과학적 인식 조차 상징 개념에 불과 ‘인간에 대하여’-> 인간은 상징적 동물 [↑](#footnote-ref-2)
3. Ex.외교문서(쟝르)->실제의 텍스트->어떻게 의미전달 [↑](#footnote-ref-3)
4. P. Berger, Johan Searl이 말하는 ‘제도’를 말하는 듯. [↑](#footnote-ref-4)
5. 리쾨르의 관점과 유사 [↑](#footnote-ref-5)
6. 일련의 locutionary-illocutionary-perlocutionary로 보는 관점 [↑](#footnote-ref-6)
7. 이때 ‘Object’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가리킴. 추상적일 것일 수도,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 [↑](#footnote-ref-7)